

대한민국 최고의 성우들과 함께하는

성우 프로젝트 그룹 V.ample의 로맨틱 코미디

항편이 날다

일 시: 2011년 12월 2일(금) ~ 4일(일)

장 소: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서울 여성플라자 아트홀 《볼》

가 격: 전석 2만원

예 매: 옥션 티켓(<http://ticket.auction.co.kr/>)

문 의: 02) 332-5038 jnhappiness@naver.com

주 최: 사단법인 J&H Group

후 원: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 생명회복연구소(사별가족을 위한)

협 찬: 백제예술대학 '뷰티 아트과' / 올드레스



“

배우는 무대에서 객석을 바라봅니다. 관객은 객석에서 무대를 바라봅니다.
우리는 각자의 위치에서 서로를 바라봅니다. 무대와 객석 사이에 공감이 있습니다.
열정이 전해지고 박수에 감사하고 우리는 서로에게 고맙습니다.

〈향단이 날다〉를 통해서 웃음과 여유 그리고 휴식의 시간이 주어지길 바랍니다.
티켓 한 장의 정성이 조금 더 어려운 이웃들에게 용기로 전해집니다.

재능을 기부해 주신 배우들 자리를 채워주신 객석기부의 관객들에게
머리숙여 깊이 감사합니다.

”

2011. 12. J&H 공동대표

이정희, 신혜원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20년 이상의 세월을 암 환자들과 함께 했습니다.
암으로 세상을 떠난 환자들은 누군가의 아버지, 어머니입니다..
남겨진 가족들은 사별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갑니다.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경제적 고통은 또 다른 힘겨운 시간들입니다

성우 프로젝트 그룹 V. ample 여러분의 정성과 사랑이 암으로 아버지를 잃은
아이들에게 장학금으로 전해집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관심과 사랑으로 자리를 채워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시는 정성어린 성금은 어려운 형편의 사별가족 아이들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마음을 담아주신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생명회복연구소(사별가족을 위한) 소장

박남규

연출의 글



저는 미흡한 사람입니다.
그 미흡한 사람이 좋은 스태프와 좋은 배우를 만나 <향단이 날다>라는
자그마한 극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비록 완성도 높은 대작은 아니지만.. 그래서 온갖 화려한 표현으로
이 여백을 채울 수는 없지만 <향단이 날다>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에게
그저 고맙고 또 고맙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믿습니다.
이 극을 보는 관객들이 편안하게 웃을 수 있고 그 웃음을 지켜보는
우리도 무대 뒤에서 편안하게 웃을 수 있다고.

아! 마지막으로 배우들에게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저는 풍파티에 안갈립니다. 무서워요 배우 여러분들이”

언제나 행복하세요.

극본/연출 김승호

무대감독의 글



연습을 지켜보며...

처음엔 걱정스러운 마음이었다.
걱정은 이내 당황스러움을 넘어 분노로 변해갔다.

그런데 말이다.. 어느 날 문득...
내안에 살고 있는 우쭐대는 작은 꼬마를 발견한다.

또다시 연습을 지켜본다.

그렇게 분노하고, 한숨짓고, 반성하고, 이해하고,
사랑했다...

삼페인을 들자!

이제 축제가 시작된다...
도전의 시간을 건넌 모든 배우들에게 축배를!~

무대감독 윤동기

ACTOR



강수진 (학도):

새로운 도전이나!! 무모한 충동이나!!
십여년만에 다시 서는 무대..
나를 다시 살아 숨쉬게 한다.



전해리 (향단):

머리보다 마음이 움직이고 싶습니다.
그래서 무대에 오릅니다
노력하고 있고..더 많이 노력하면 언젠가는...



송준석 (월매):

미친듯이 집중하자.
그러나 미치지는 말자..
천천히 꿈을 향해 가자



전숙경 (춘향):

나는 스스로 즐길 줄 아는 여성이다.
때때로 이어지는 삶의 고비에서
질 때도 있고 이길 때도 있지만...



백승철 (몽룡):

가짜가 아닌 진짜이고 싶은데..
어디서든 언제나 진실하게 뭔가를
한다는 건 역시 쉽지 않다.
또 한 번의 도전!! 후회없이 가자!!!



박영재 (방자):

날고싶다. 날고싶다.
어쩌면 나는 공연이 끝난 뒤
정말 날고 있을지도 모른다



곽윤상 (이사 외):

2011년 여름과 가을..향단이 날다로 바쁘게
살았습니다. 기분좋은 분주함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성우 파이팅!!



오병조 (이사 외):

행복한 삶을 위해 오늘도 즐겁게!!



나지형 (미래춘향):

사랑으로 따뜻하게 채워질
2011년 겨울을 기대합니다...



유호한 (학도):

무대에 오르는 것 보다 내려서는 순간이
더 어려움을..느끼고 깨닫습니다



이장원 (월매):

향단아만 날아다니냐! 우리도 한 번 날아보자
몸이 무거워서 날 수 있을까...에라이,
모두 파이팅!!



전진아 (춘향):

우물 밖으로 한 걸음 내딛다!!



정재현 (몽룡):

언젠가 꼭 다시 서고 싶었던 그리운 무대.
다른 사람들의 무대를 볼 때마다 뛰어 올라가고
싶어 두근거렸던 설렘으로 다시 무대에 섭니다.
불태우겠습니다. 아쉬움이 남지 않도록



사성웅 (방자):

오랜만에 서는 무대..머리는 녹슬었지만
가슴의 열정으로 방자에 빠졌습니다..



윤세웅 (이사 외):

살아있음을 느끼다
무대에 서는 자체가 내겐 즐거움이다.



이병용 (이사 외):

모두 고생 한 지난 시간들이었습니다.
힘들었지만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고맙습니다...



정현경 (미래춘향):

어느 무대에서건 즐겁고 싶었고 행복하고 싶었다.
사람들과 소통 잘하는 배우가 되자고..
나를 좀 더 풀어놓는다.



권문정 (환경미화원 외):

무대는 제게 떨림입니다..두려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대 위 제 모습은 설렘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함께한 선배님들..
사랑합니다..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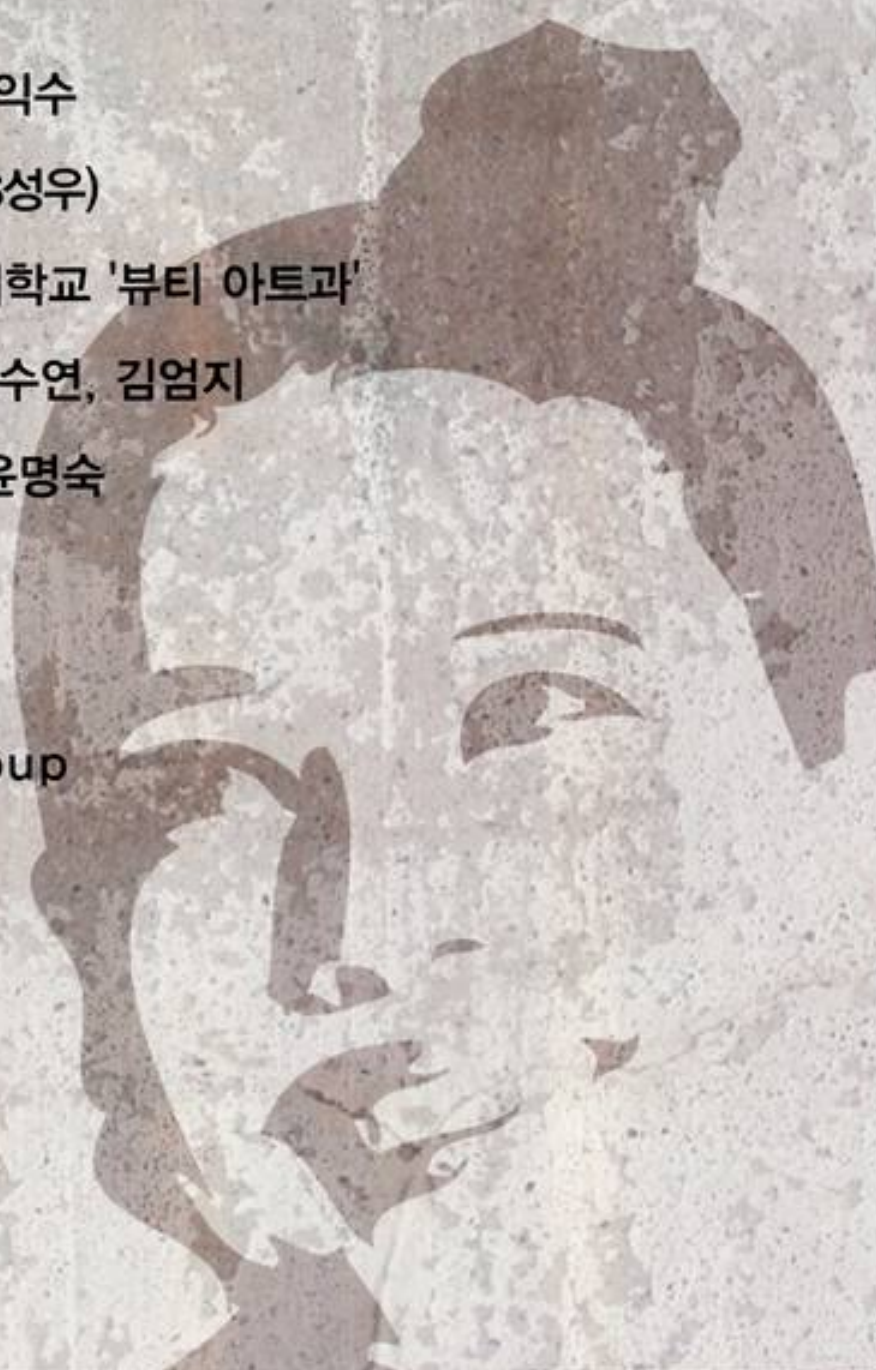
Double Casting

	12.2	12.3	12.4
16:00	유호한 (학도) 전해리 (항단) 송준석 (월매) 전숙경 (춘향) 백승철 (몽룡) 박영재 (방자) 곽윤상 (이사1) 이병용 (이사2) 오병조 (이사3외) 정현경 (미래춘향) 권문정 (환경미화원 외)	유호한 (학도) 전해리 (항단) 송준석 (월매) 전숙경 (춘향) 백승철 (몽룡) 박영재 (방자) 곽윤상 (이사1) 이병용 (이사2) 오병조 (이사3외) 정현경 (미래춘향) 권문정 (환경미화원 외)	강수진 (학도) 전해리 (항단) 이장원 (월매) 전진아 (춘향) 정재현 (몽룡) 사성웅 (방자) 윤세웅 (이사1) 이병용 (이사2) 오병조 (이사3 외) 나지형 (미래춘향) 권문정 (환경미화원 외)
19:30	강수진 (학도) 전해리 (항단) 이장원 (월매) 전진아 (춘향) 정재현 (몽룡) 사성웅 (방자) 윤세웅 (이사1) 이병용 (이사2) 오병조 (이사3 외) 나지형 (미래춘향) 권문정 (환경미화원 외)	강수진 (학도) 전해리 (항단) 이장원 (월매) 전진아 (춘향) 정재현 (몽룡) 사성웅 (방자) 윤세웅 (이사1) 이병용 (이사2) 오병조 (이사3 외) 나지형 (미래춘향) 권문정 (환경미화원 외)	유호한 (학도) 전해리 (항단) 송준석 (월매) 전숙경 (춘향) 백승철 (몽룡) 박영재 (방자) 곽윤상 (이사1) 이병용 (이사2) 오병조 (이사3외) 정현경 (미래춘향) 권문정 (환경미화원 외)

* 상기 출연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STAFF

- ▷ 극 본 연 출 / 김승태
- ▷ 무 대 감 독 / 윤동기
- ▷ 음 향 / 지효승
- ▷ 조 명 / 권 익
- ▷ 음 악 / 곽장용
- ▷ 효 과 / 이흥규, 안익수
- ▷ 특 별 출 연 / 김동하(KBS성우)
- ▷ 메이크업&헤어 / 백제예술대학교 '뷰티 아트과'
서현재, 장수연, 김엄지
- ▷ 특 수 의 상 / 올드레스 윤명숙
- ▷ 인 쇠 / 이 영
- ▷ 포스터&팜플렛 / 황경주
- ▷ 제 작 / J&H Group



Thanks to

옥션티켓, 롯데제과, 이흥규님, 안익수님, 강은하님, 박재준님,
심정희님, 김경순님, 권말희님, 홍경숙님, 강병구님, 윤명숙님,
최은희교수(백제예술대), 김경희(KBS 영진 플라워), 조PD(가수)

그 외 관심으로 지켜봐주시고 응원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합니다.



“상처받은 사람들이
사랑과 섬김을 통해
건강한 삶으로 **회복**되기를 바라는 의미입니다.”

— 생명회복연구소 —



백제예술대학교
PAEKCHE INSTITUTE OF THE ARTS

“죽은 밀가루를 부르는 이름”

맥선TM

좋은 밀가루는
명장(名匠)의 손끝에서
꽃이 되어 피어납니다.



'백선 일가루'는 60년 전통의 탁월한 제분
기술과 고객의 만족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동아원(주)의 정성으로 생산되어 우리의 식생활
문화를 한 단계 더 향상시킨 고급 제품입니다.

학원은 한국제본과 동아원의 통합 '대요 보현도'로서 '백룡 보현도'와 '연심선전'을 조합하여, 국을 본이 최고의 경지를 지향하는 한국제본과 동아원은 오대산(五臺山) 보현을 읽고 있네(2)



동아원1 DongA One Corporation

동아리주제에 60여건의 역사를 자랑하는 동아리제도의 새로운 이름입니다.

서울·영등포구 여의도동 60번지·대한생명 63빌딩 54층·무(150-763)
고객상담실 : ☎ 080-370-3377